

쿠바의 다마스 데 블랑코

김희순

지난 3월 17~18일 쿠바 정부는 다마스 데 블랑코(Damas de Blanco, ‘흰옷 입은 부인들’이라는 뜻) 회원 수십 명을 체포했다. 3월 말로 예정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방문을 앞두고 이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한 데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다마스 데 블랑코는 구금된 쿠바 반체제 인사의 여성 가족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바나를 근거지로 활동해 왔다. 이들은 매주 일요일 흰 옷을 입고 글라디올러스를 든 채 교회에서부터 자신들의 집까지 행진을 하며 쿠바 정부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한다.

다마스 데 블랑코 회원들이 행진을 할 때 정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나 경찰과의 마찰이 종종 빚어졌지만 이들이 전격적으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바 정부는 이들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결국 체제의 불안정성을 키울 것이라 판단해 강경 진압은 피해 왔다. 그러나 다마스 데 블랑코 회원들은 평소에도 정부 및 친정부 단체에 의해 감시를 받아왔고 여행에 제한을 받았으며 쿠바 주재 미국 공관 관련 행사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2003년 쿠바 정부는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으며 미국 기관을 위해 일한 혐의로 75인의 반체제 인사를 체포하여 구금하였다. ‘암흑의 봄’이라 불리는 이 사건의 검거 인사 75인 중 29인이 언론인이었고, 도서관 사서, 인권 운동가, 민주화 운동가 등도 포함되었다. 2011년 3월, 쿠바 정부는 지난 2003년 봄에 미국을 위한 간첩 행위로 검거되었던 75인을 석방하였다. 이는 쿠바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것으로, 스페인 당국과 로마 가톨릭 교회가 큰 역할을 하였다.



아바나 거리를 행진하는 다마스 데 블랑코 회원들

2003년 사건 이후 쿠바의 구금 반체제인사들 및 그 지지자들은 국제적으로 큰 관심과 원조를 받아왔다. 다마스 데 블랑코는 2005년 유럽 의회가 수여하는 사하로프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스페인 총리가 직접 그들에 대한 지지를 편지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2010년 스위스 거주 쿠바 난민들은 다마스 데 블랑코를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렸으며 현재도 수상을 추진 중이다. 다마스 데 블랑코는 국제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으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쿠바 국내에서는 언론 통제에 의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한편 다마스 데 블랑코는 아바나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공관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지난 부시 대통령 정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쿠바 정부는 다마스 데 블랑코가 미국 정부에 의해 창설되었고 지속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쿠바를 약화시켜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미국의 음모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다마스 데 블랑코의 설립에 관여하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쿠바 주재

미국 공관들이 이 단체를 위한 후원금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혀졌다. 정확한 액수와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마스 데 블랑코는 미국이 제공한 후원금을 받은 것을 알려졌다. 이는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을 수수하였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쿠바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쿠바 주재 미국 공관 관계자들은 다마스 데 블랑코를 비롯한 쿠바 내 민주화 세력이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정치적 탄압을 받는 이들의 어머니들이 형성한 단체가 여럿 결성되어 있다. 특히 정치적 억압이 심하였던 칠레의 ‘구금 및 실종자들의 가족 연합’ 과 아르헨티나의 ‘5월 광장의 어머니들’ 이 가장 유명하다. 이 두 단체는 1970년대 독재 정권에 의해 살해되거나 실종된 자녀들을 둔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이 외에도 엘살바도르의 코마드레스(CoMadres), 니카라과의 ‘영웅과 순교자의 어머니회,’ 과테말라의 상호부조회(Grupo de Apoyo Mutua) 등 다수가 있다. 다마스 데 블랑코는 이러한 라틴아메리카의 어머니 모임의 형식을 차용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여성이 지니는 이미지, 즉 고통받고 희생하는 존재로서의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독재로 고통받는 자녀들을 위해 일어난 어머니들의 행진의 기원은 1950년대 쿠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57~1958년 쿠바의 6월 26일 항쟁 당시 카스트로가 주축이 된 반란 세력은 바티스타 독재 정권의 폭압을 폭로하기 위해 산티아고 시에서 어머니들의 행진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다마스 데 블랑코의 어머니들은 중립을 표방하며 그들이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가 순수할지라도, 그들의 존재 이면에는 좀더 복잡하고 정치적인 조직들이 관여되어 있으며 다마스 데 블랑코의 대표는 이미 정치적인 자리가 되었다.

다마스 데 블랑코는 대외적으로 반 카스트로 조직으로서 알려져 있으나 공공연한 정치적 이미지보다는 폭넓은 동정심을 받아 왔다. 따라서 지난 8년 간 카스트로 정권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미국 정부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아왔다. 실제로 전 국무부 중남미담당 차관보였던 로저 노리에가(Roger Noriega)는 다마스 데 블랑코는 아르헨티나나 칠레의 어머니 모임들보다 더욱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5월 어머니 측은 강한 반발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실제로 수천 명의 아르헨티나인, 칠레인, 살바도르인들은 독재 정권에 의해 공통스런 죽음을 맞거나 고문을 당했으며 심지어 어머니회의 회원들조차도 구금되거나 살해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광장의 어머니 모임은 칠레 주재 미국 대사관을 비롯한 국제 외교에서 비교적 적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반해 쿠바의 암흑의 봄에 구금된 75인은 모두 석방되어 대부분 스페인으로 망명했다.

이러한 정치적인 맥락을 떠나서, 다마스 데 블랑코는 사랑하는 이들이 감옥에 갇힌 슬픔을 지닌 여성들이다. 국제 앰네스티는 쿠바 정부가 아직 석방되지 않은 사상범들과 그 가족에 대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희순 —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